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52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2 No.4 pp.121-131

기업가적 과정에서 인지양식의 조절적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대업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성창수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국 문 요 약

기업가정신 연구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업이며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이 초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창업의도의 형성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창업행위, 구체적으로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과정을 창업의도에서 초기 기업가적 행동인 창업잉태과정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잠재적 창업가들의 정보를 처리하는 사고방식인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과 환경적 요소들 중 창업에 대한 지각된 장벽과 지각된 지원 역시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잠재적 창업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선정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67부의 표본을 확보하고 PLS 구조방정식을 적용시켜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의도, 인지적 계획양식, 인지적 창의양식, 지각된 지원은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정의 대상인 인지양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계획양식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으며 인지적 창의양식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장벽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계획양식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였고, 인지적 창의양식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지원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계획양식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쳤으며 인지적 창의양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창업의도, 초기 기업가적 행동, 인지양식, 지각된 장벽, 지각된 지원

Ⅰ. 서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연구에 있어서 개인별 접근법은 크게 성격/특성 접근법(Trait/Characteristics Approach)과 행위 접근법(Behavior Approach)으로 구분되며 성격/특성 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행위 접근법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Gartner, 1985; 1988). 또한 성격/특성 접근법의 비판으로 제기된 방법이 인지기반 접근법이며 대표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PB), 기업가적 사전(SEE) 등이다(Mitchell et al., 2002). 그러나 이 모형들은 행위 접근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실증분석의 단계는 창업의도까지이다. 즉,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초점으로 하였고 창업의도가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업가적 과정 또는 창업잉태과정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에서 창업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잠재적 창업가에 대한 연구들에서 소수의 연구들만이 초기 기업가 행동, 즉 창업의도 이후 단계를 다루었으며(김대업·성창수, 2013; 성창수·김진수, 2011; 장수덕·이재훈, 2014; 한정희·조건, 201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창업의도까지 다루고 있다.

기업가정신 연구의 인지기반 접근법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방법들 중 하나가 인지양식의 적용이다. 인지양식은 사람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에 관련된 사고방식이다(Allinson et al., 2000; Cools & Van den Broeck, 2007; Mitchell et al., 2002). 인지양식이 기업가 과정에 적용되면 창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가는 창업관련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과정을 창업잉태과정인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단계로 규정하고 이 단계에서 인지양식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각된 장벽과 지각된 지원이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양식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 지를 규명할 것이다.

Ⅱ. 문헌고찰 및 가설설정

2.1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 행동

2.1.1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접근

* 제1저자, 경상대 경영학과, krmarking@daum.net
** 교신저자, 동국대 기술창업학과, redsun44@dongguk.edu
· 투고일: 2017-07-03 · 수정일: 2017-08-11 · 게재확정일: 2017-08-24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업가적 기회를 확인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창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획을 실행과 더불어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Farmer et al., 2011).

기업가 정신[1])은 간략히 정의하자면, 현재의 자원들과는 관련이 없는 기회, 즉 현재 사업과 무관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서 강조된 기회를 바탕으로 기업가를 정의하게 되면 기업가적 기회를 추구한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된다(Krueger & Brazeal, 1994). Krueger & Brazeal(1994)의 기업가에 대한 관점은 다소 폭넓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업가에 대한 관점에는 기업가적 기회와 더불어 기업가적 잠재력과 창업의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가와 비기업가의 구분은 1980년대 후반 기업가정신 연구영역의 핵심주제들 중 하나였다. Gartner(1988)은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직창출(Creation of Organization)로 보았고 조직을 창립시키는 기업가에 대한 연구의 두 가지 접근법인 특성 접근법(Traits Approach)과 행위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들 중 행위적 접근법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위적 접근법은 "어떻게 조직이 출현하게 되는가?" 에 대한 설명으로, 기업가가 조직을 창출시키는 연속적인 행위들을 수행하는 과정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Gartner, 1988).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기준은 창업의도이다. 물론 창업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기업가적 성과 또는 창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Allinson et al., 2000).

기업가정신의 적용대상을 구분할 경우 개인별 접근법과 조직 접근법이 있다.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어떠한 조직체를 설립, 즉 창업을 하려는 측면이 강조된다(Sequeira et al., 2007).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구성원들 또는 특정 조직체의 경영활동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율적이며 적극적 경쟁을 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Dess & Lumpkin,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개인별 접근법과 기업가에 대한 행위적 접근법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조직체 또는 조직구성원들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아직 조직체를 설립하지 않은 개인별 잠재적 창업가가 창업의도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행위를 초점으로 한다.

2.2 기업가적 과정

일반적으로 의도는 행위를 예측하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변수로 고려된다. 창업가가 되기 위한 의사결정인 창업의도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업의도는 창업과정 또는 기업가적 과정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최초의 단계이다. 창업의도는 기업가적 행위를 통하여 창업에 이르게 된다(Liñán & Chen, 2009).

"창업과 창업가가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Sequeira et al., 2007). 첫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계획된 행동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Shapero의 기업가적 사건(Shapero & Sokol, 1982) 등이 있다. 둘째, 특정 개인들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기업가적 행위를 더 할 것 같은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인의 속성, 가치, 특성, 인구통계적 요인, 그리고 문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동기부여 모형이다. 셋째,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초기 기업가적 행위가 발생하는 잉태기간(Gestation Period)에 초점을 맞춘 기업가적 과정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기업가(Nascent Entrepreneur)는 창업을 완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Reynolds, 1994 cited in Sequeira et al., 2007). 그러나 이 개념은 창업의도가 확실하다는 전제조건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념인 잠재적 창업가(Potential Entrepreneur)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잠재적 창업가는 단어 그대로 창업가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의도의 정도와 창업 여부의 조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외연적 확장성으로 인하여 기업가정신의 교육영역에서 연구대상으로 활용된다.

기업가적 과정모형의 주된 초점은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관련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창업의도에서 초기 기업가적 행동으로 발전되는 부분을 잉태기간으로 지칭한다(Carter et al., 1996; Sequeira et al., 2007). Carter et al.(1996)은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14가지인, (1) 팀의 조직, (2) 수립된 계획, (3) 시설/장비의 구매, (4) 시설/장비의 렌트, (5) 시설확보, (6) 자신의 돈을 투자, (7) 펀딩에 대한 요청, (8) 재무적 지원의 확보, (9) 사업모델 개발, (10) 헌신적 노력, (11)라이센스/특허의 응용, (12) 법적 실체를 조직, (13) 종업원 고용, (14) 투자를 위해 저축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업가적 과정에서의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개념화 또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Davidsson, 2003; 2004; Farmer et al, 2011; Shane & Venkataraman, 2000)에서는 초기 기업가적 행위를 창업아이디어의 발견(Discovery)과 개척(Exploitation)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발견은 벤처 아이디어를 초기에 개념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조사, 실제 창업의 가능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고심/토론, 창업방법에 대한 학습, 창업을 위한 제품, 서비스, 시장기회를 정하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초기 기업가적 행위의 두 번째 요소인 개척은 새로운 벤처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들을

1) Entrepreneur(ship)의 번역에 있어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가 (정신)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가' 용어를 사용하나 창업 자체와 관련성이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창업가'를 사용한다.

말한다. 개척과정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무에 대한 학습 및 계획, 자신의 자금을 투자, 펀드기관에 문의, 필요장비 확보, 필요인력 채용, 특허/저작권/상표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과정을 창업잉태과정인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유는 분석대상이 잠재적 창업가이며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창업의도가 높거나 과정이수를 통하여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창업의도의 선행요인부터 창업의도까지의 과정보다는 창업의도부터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 간에는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잠재적 창업가로 보고 이들의 기업가적 과정을 실증분석한 연구(김대업·성창수, 2013)과 시니어 창업스쿨을 수료한 시니어들을 잠재적 창업가로 본 연구(성창수·김진수, 2011)의 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계수크기가 0.5 이상 되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 행동에 관한 고찰된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창업의도는 초기 기업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인지양식

2.2.1 인지양식의 개념, 특성 및 종류

인지양식(Cognitive Style)은 개인이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선호하는 방식이다(Cools & Van den Broeck, 2007). 개인의 서로 다른 인지양식은 인지, 학습, 문제해결, 의사결정,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성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yes & Allinson, 1994).

양식(Style)이란 무언가를 할 때 습관적인 패턴이나 성호된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다(Grigorenko & Sternberg, 1995). Witkin et al.(1977)은 인지양식을 사람이 인지하고, 사고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Messick(1984)는 정보와 경험을 조직하고 처리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Hunt et al.(1989)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찰을 기초로 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조직하여 판단에 이르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Allinson et al.(2000)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선호된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Cools & Van den Broeck(2007)은 사람들이 자극/정보를 인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이 자극/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인지양식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인지양식으로는 장 의존적과 장 독립적(Field-Dependent-Field-Independent) (Witkin, 1962), 적응자와 혁신자(Adaptors-Innovator) (Kirton, 1976), 직관적-분석적(Intuition-Analysis) (Allinson & Hayes, 1996), 그리고 이해(Knowing), 계획(Planning), 창의적(Creating) 인지양식(Cools & Van den Broeck, 2007) 등이 있다.

장 의존적-장 독립적 인지양식은 사물의 배경인 장(Field)에 의존하여 사물을 지각하는가 아니면 장(Field)과 상관없이 사물만을 가지고 지각하는가로 설명된다. 적응자와 혁신자는 연속선상에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반대적 특성으로 적응자는 문제를 발견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고 정형적인 상황과 어울리며, 혁신자는 문제와 해결수단을 발견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비정형적인 상황에서의 행동통제와 관련된다. 또한 적응자는 증명되고 동의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혁신자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가정들에 의문을 가지며 그 문제를 잘 조작화한다. 직관-분석에서 직관은 느낌 및 전체적 관점을 기초로 하는 즉각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분석은 논리와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집중을 기초로 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다른 인지양식과는 달리 Cools & Van den Broeck(2007)의 인지양식은 이해양식, 계획양식, 창의양식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인지적 이해양식을 가진 사람은 사실이나 데이터를 찾으며 주변 상황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원한다. 그리고 확실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해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들을 선호한다. 인지적 계획양식을 가진 사람은 잘 정형화된 작업환경을 선호하며 이를 조직화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또한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인지적 창의양식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이며 실험을 선호한다. 그리고 문제를 기회나 도전으로 인식하며 불확실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인지양식은 주로 성격(Personality)와 많이 비교된다. 인지양식은 개성과는 독립적인 것이나 개성과 상호작용은 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더불어 인지양식은 감정(Affect)과 개념적으로 다르며(Tullett & Davies, 1997), 능력(Ability)과도 달라야 한다(Riding, 1997). 인지양식과 성격의 차이를 간략히 말하자면 인지양식이 '세상을 보는 지각적 측면'이라면 성격유형은 '세상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태도와 측면'으로 볼 수 있다(심진섭·조경자, 2008). 인지양식의 차원들이 개념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Riding, 1997). 이는 인지양식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지양식의 차원들은 (1) 상호간 독립적이어야 하고, (2) 지적능력과 분리되어야 하며, (3) 성격과 독립적이어야 하고, (4) 관찰된 행위(학습성과, 학습선호, 대상선호, 그리고 사회적 행위)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5) 심리적 측정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6) 인지양식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2.2.2 인지양식과 기업가적 과정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과정에 있어 인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인지양식 역시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기업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어 왔다(Adomako et al., 2016; Armstrong & Hird, 2009; Carland et al., 2001; Mitchell et al., 2000).

인지양식의 수준은 기업가의 기업 내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Allinson et al., 2000), 기업가가 어느 기업가적 과정(전단계/후단계)에서 활동하는가에 따라 수준의 차이를 보임과 동시에 기업가와 비기업가의 인지양식 수준 역시 차이를 보인다(Armstrong & Hird, 2009). 기업가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지양식들 중 직관에 대한 연구(Allinson et al., 2000)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가인 소유경영자의 인지양식인 직관은 일반관리자들보다 더 높고 중간 및 하위 관리자들보다 더 높았다.

즉,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기업가들은 다른 관리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한 정보, 시간압박, 모호성, 불확실성 등의 환경적 특성에서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는 인지양식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인지양식의 수준차이에 대하여 Olson(1985)는 발견된 기술의 새로운 적용에 대한 기회의 확인,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의 개발노력 등의 기업가적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가들은 직관적, 종합적, 그리고 전체적 인지양식을 가지며, 이후 단계들인 시장기회의 평가와 재무, 생산, 유통 등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이성적, 분석적, 선형적 인지양식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Olson(1985)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실증연구로 Armstrong & Hird(2009)와 Kickul et al.(2009)이 있다.

Armstrong & Hird(2009)는 기업가들의 인지양식의 정도는 기업가적 과정의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기업가에 비해 기업가는 인지적 직관의 수준이 더 높고, 기업가의 인지적 직관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기업가적 동인 수준을 보였다. 여기서 기업가적 동인은 인지, 혁신선호, 위험감수, 전략적 태세 등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Kickul et al.(2009)는 인지적 직관양식과 인지적 분석양식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업가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기업가적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상관관계의 크기는 기업가적 과정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업가적 과정 단계인 창업기회의 개념화 및 확인 단계에서는 인지적 직관양식의 집단의 상관정도가 더 크고, 나머지 세 개 단계(사업계획 단계, 창업과정에 필요한 자원들의 준비단계, 창업과정의 실행단계)에서는 인지적 분석양식의 집단의 상관정도가 더 크다.

Adomako et al.(2016) 역시 기업가적 과정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업가적 낙천주의와 기업가적 지속성의 상관관계에서 인지적 계획양식과 인지적 창의양식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낙천주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를 뜻하며 기업가적 지속성은 가상적 또는 실재적인 실패, 방해,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지양식은 기업가들의 학습, 지식축적, 정보처리, 의사결정, 그리고 기업가들의 주요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된다(Kickul et al., 2009).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과정을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 즉 창업잉태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 계획양식과 인지적 창의양식이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H2: 인지양식(H2a: 인지적 계획양식, H2b: 인지적 창의양식)은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영향관계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각된 장벽과 지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으며 지각된 장벽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지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지각된 장벽과 지원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Lüthje & Franke, 2003)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Schwarz et al., 2009), 그리고 어느 하나만 유의한 연구(Kuckertz & Wagner, 2010) 등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편, 지각된 장벽과 지원이 창업의도의 형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창업행동에 있어서도 관련되어 있다.

Robertson et al.(2003)의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창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자금문제, 기타,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확신이 없어서, 창업능력의 부족, 사업아이디어가 없어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등의 순으로 자금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업가는 관리자보다 어려운 환경적 특성에서 인지양식의 수준이 더 높고(Allinson et al., 2000), 초기 단계의 기업가는 설립 이후의 기업가들보다 인지양식의 수준이 더 높으며(Armstrong & Hird, 2009), 기업가적 지속성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친다(Adomako et al.,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기업가의 인지양식은 기업가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지원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창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각된 장벽과 지원이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인지양식은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H3: 인지양식(H3a: 인지적 계획양식, H3b: 인지적 창의양식)은 지각된 장벽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H4: 인지양식(H4a: 인지적 계획양식, H4b: 인지적 창의양식)은 지각된 지원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Ⅲ. 연구설계

3.1 구성개념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가의 기업가적 과정인 창업잉태과정, 즉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서 인지양식이 어떤 조절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로 연구에

포함된 개념의 척도들의 내용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창업의도는 Liñán & Chen(2009)의 다섯 개의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항목으로 창업의도를 묻는 척도(Kuckertz & Wagner, 2010)보다 다양한 측면의 창업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McGee et al.(2009)와 Farmer et al.(2011)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McGee et al.(2009)의 다섯 개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McGee et al.(2009)의 척도는 일반적인 수준의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다루는 반면, Farmer et al.(2011)의 척도는 더 구체적인 수준의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양식은 양극단이 인지적 직관과 인지적 분석인 단일 문항에 의해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다(Kickul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분 변수인 명목척도에 의한 조절효과가 아닌 연속형 변수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Cools & Van den Broeck(2007)이 개발한 인지양식을 사용하였다. Cools & Van den Broeck(2007)이 개발한 인지양식은 이해, 계획, 창의양식 세 가지로 구성되나 이중 인지적 이해양식의 경우 분석 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활용되고 있었던 다른 인지척도인 KAI(Kirton, 1976)와 성격특성 척도인 MBTI(Myers et al., 2003)의 상관분석에서 인지적 이해양식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낮았다. 즉, 계획양식과 창의양식이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정도보다 이해양식의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정도가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둘째, 이후 실증분석에서도 인지적 이해양식의 뚜렷한 역할, 즉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Adomako et al., 2016; Cools et al., 2009). 특히 Adomako et al.(2016)에서 인지적 이해양식은 기업가적 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절변수화 시켰을 때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계획 및 창의양식에 비하여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된 장벽과 지원은 잠재적 창업가가 창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Robertson et al., 2003). 지각된 장벽 및 지원은 Kuckertz & Wagner(2010)의 척도와 국내 대학생에 적합한 새로운 척도를 종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롤모델, 아르바이트 경험, 성별, 나이 등이 있다. 롤모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창업을 한 사람이 있는가를 질문하였고 없으면 0, 있으면 1로 코딩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자신의 아르바이트 기간을 월단위로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성별은 여성 0, 남성 1로 코딩되었다. 창업의도, 초기 기업가적 행동, 인지적 계획 및 창의양식, 그리고 지각된 장벽 및 지원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3.2 표본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업가적 과정을 경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잠재적 창업가이다. 보다 명확한 잠재적 창업가에 대한 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창업과 관련된 이론적 내용과 관련된 과목들과 창업사례분석과 관련된 과목들 및 학생들이 실제로 모의 창업을 해야 하는 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이나 경영학 관련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보다는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이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수집은 2016년 6월 첫 주와 둘째 주에 이루어졌으며 38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36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표본특성

연령	N	%	학년	N	%
18-20세	197.0	53.7	1학년	176	48.0
21-23세	87.0	23.7	2학년	74	20.2
24-26세	72.0	19.6	3학년	43	11.7
27세 이상	11.0	3.0	4학년	74	20.2
성별	**N**	**%**	**아르바이트 경험**	**N**	**%**
여	167	45.5	없음	97	26.4
남	200	54.5	1년 이하	197	53.7
-	-	-	2년 이하	44	12.0
지인 창업	**N**	**%**	3년 이하	19	5.2
없음	199	54.2	4년 이상	10	2.7
있음	168	45.8	**총**	**376**	**100**

수집된 표본의 연령은 만 20세 이하가 53.7%, 만 20세 초과가 46.3%로 구성되었고 학년은 1학년 48%, 4학년 20.2%, 2학년 20.2%, 3학년 11.7%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학생 45.5%, 남학생 54.5%로 비슷한 구성이었다. 롤모델, 즉 친구, 선배 등 주위 지인이 창업한 경우가 45.8%를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54.5%로 역시 비슷한 비율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 있어서 무경험이 26.4%이었으며 아르바이트 유경험 중 1년 이하가 53.7%로 가장 많았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PLS 구조방정식(PLS-SEM) 기반인 SmartPLS 2.0 M3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회귀분석으로 분석을 할 경우 잠재변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기존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CB-SEM)을 활용할때 연속척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들 중 성별, 연령, 롤모델,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은 단일지시자의 잠재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은 범주형 변수로 조형지표로 구성하였다(Jabbour et al., 2015).

<표 2> 신뢰도 및 타당도

Path	Items	Coeff.	S.E.	t	Composite Reliability	AVE
ei1 ← EI	창업활동에 대한 준비	0.798	0.024	33.180	0.956	0.813
ei2 ← EI	창업가를 향한 목표	0.930	0.010	90.471		
ei3 ← EI	창업을 위한 노력	0.937	0.008	113.802		
ei4 ← EI	창업에 대한 결심	0.939	0.008	121.700		
ei5 ← EI	미래의 창업에 대한 의지	0.896	0.012	73.620		
cps1 ← CPS	명확한 계획수립을 중시	0.812	0.027	29.591	0.909	0.624
cps2 ← CPS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을 선호	0.781	0.034	22.742		
cps3 ← CPS	디테일한 행동계획 선호	0.833	0.025	33.610		
cps4 ← CPS	일처리의 확실한 체계를 선호	0.831	0.029	28.381		
cps5 ← CPS	잘 준비된 회의를 선호	0.772	0.038	20.404		
cps6 ← CPS	명확한 약속 및 세심한 약속이행의 선호	0.704	0.044	16.143		
ccs1 ← CCS	혁신적 문제해결방식의 선호	0.816	0.030	27.440	0.912	0.675
ccs2 ← CCS	창의적 해결방법을 추구	0.861	0.018	48.968		
ccs3 ← CCS	다양한 경험/일을 선호	0.786	0.032	24.964		
ccs4 ← CCS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호	0.826	0.027	31.184		
ccs5 ← CCS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0.818	0.023	35.184		
ne1 ← NE	창업관련 강좌/세미나/활동 등에 대한 참여도	0.806	0.024	33.083	0.910	0.669
ne2 ← NE	창업관련 강좌/세미나/활동 등에서 창업계획서 작성 경험	0.749	0.035	21.278		
ne3 ← NE	창업팀 조직 시 자신의 참여도	0.867	0.016	54.317		
ne4 ← NE	창업자본금에 대한 방안의 모색 정도	0.831	0.019	43.400		
ne5 ← NE	창업아이템에 대한 구상 정도	0.831	0.018	45.519		
pb1 ← PB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어려움	0.988	0.231	4.275	0.818	0.700
pb2 ← PB	기업경영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	0.652	0.243	2.686		
ps1 ← PS	창업관련 학습/지원 등의 혜택	0.897	0.036	24.945	0.854	0.746
ps2 ← PS	대학생 창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	0.829	0.052	15.888		

EI=창업의도, NE=초기 기업가적 행동, CCS=인지적 창의양식, CPS=인지적 계획양식, PB=지각된 장벽, PS=지각된 지원

<표 3> 상관행렬

	EI	NE	CCS	CPS	PB	PS
EI	0.902					
NE	0.582**	0.818				
CCS	0.350**	0.383**	0.822			
CPS	0.141**	0.305**	0.460**	0.790		
PB	0.083	0.062	0.163**	0.206**	0.837	
PS	0.256**	0.291**	0.183**	0.234**	0.158**	0.864

** $p < 0.01$, 대각원소들은 각 잠재변수들의 AVE의 양의 제곱근
EI=창업의도, NE=초기 기업가적 행동, CCS=인지적 창의양식, CPS=인지적 계획양식, PB=지각된 장벽, PS=지각된 지원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계수들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으며 개념 신뢰도는 0.818~0.956, AVE는 0.624~0.813으로 각각 0.7과 0.5의 경험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별 신뢰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모형의 상관행렬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상관계수들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대각선에 제시된 AVE의 양의 제곱근과 비교해서 AVE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념들 간에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상관계수는 그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데 포함된 잠재변수의 AVE의 양의 제곱근에 비하여 작았다. 따라서 잠재변수들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 대한 PLS 모델링 분석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1과 모형3은 기본모형이며 모형3과 모형4는 각각의 기본모형들을 바탕으로 하는 조절효과 모형들이다.

<표 4> PLS 모델링 분석 1

Path	Model 1 b	Model 1 S.E.	Model 1 t	Model 2 b	Model 2 S.E.	Model 2 t	f^2
Main Effects							
EI → NE	0.452***	0.049	9.211	0.421***	0.049	8.614	0.268
CPS → NE	0.172***	0.043	4.034	0.162***	0.047	3.437	0.029
CCS → NE	0.120**	0.048	2.523	0.130***	0.048	2.710	0.025
PB → NE							
PS → NE							
Moderate Effects							
EI × CPS → NE				0.049	0.044	1.115	
EI × CCS → NE				0.097**	0.043	2.233	
Control Variables							
age → NE	0.113**	0.052	2.175	0.106**	0.052	2.033	
sex → NE	-0.055	0.039	1.404	-0.069*	0.041	1.657	
month → NE	-0.069*	0.039	1.743	-0.065*	0.039	1.698	
ref → NE	0.134***	0.046	2.923	0.137***	0.045	3.066	
R^2	0.427			0.440			
ΔF				4.291**			
GoF	0.557			0.527			

Path	Model 3 b	Model 3 S.E.	Model 3 t	Model 4 b	Model 4 S.E.	Model 4 t	f^2
Main Effects							
EI → NE	0.426***	0.051	8.321	0.419***	0.053	7.890	0.192
CPS → NE	0.159***	0.044	3.656	0.137***	0.045	3.036	0.051
CCS → NE	0.118**	0.046	2.562	0.144***	0.047	3.048	0.044
PB → NE	-0.041	0.039	1.054	-0.014	0.034	0.417	0.016
PS → NE	0.107**	0.045	2.396	0.106**	0.048	2.209	0.026
Moderate Effects							
PB × CPS → NE				0.048	0.039	1.213	
PB × CCS → NE				-0.101**	0.049	2.058	
PS × CPS → NE				0.105**	0.051	2.069	
PS × CCS → NE				-0.050	0.037	1.348	
Control Variables							
age → NE	0.114**	0.051	2.209	0.126**	0.051	2.475	
sex → NE	-0.047	0.036	1.320	-0.057*	0.034	1.652	
month → NE	-0.057	0.039	1.479	-0.056	0.038	1.458	
ref → NE	0.127***	0.045	2.840	0.108**	0.047	2.328	
R^2	0.436			0.453			
ΔF				2.744**			
GoF	0.556			0.516			

* p<0.1, ** p<0.05, *** p<0.01
EI=창업의도, NE=초기 기업가적 행동, CCS=인지적 창의양식, CPS=인지적 계획양식, PB=지각된 장벽, PS=지각된 지원

네 가지 모형 모두 적합도인 GoF(Goodness-of-Fit)은 0.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적합도 기준인 0.36을 상회하고 있어 모형들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Wetzels et al., 2009). R2의 효과크기인 f^2는 내생변수의 설명력에 대한 외생변수의 기여도를 뜻하며 0.02, 0.13, 0.26을 기준으로 낮음, 중간, 높음으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다(Cohen, 1988). 모형2와 모형4에서 살펴보면 내생변수인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창업의도의 기여도는 각각 0.268, 0.192로 외생변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외생변수들의 f^2는 대부분 0.02의 수준을 넘고 있어서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설명하는 최소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모형1과 모형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창업의도는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영향관계에 대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검정은 다음과 같다. 모형1과 비교하여 모형2에서 F변화량은 유의하였으며(⊿F=4.291**) 인지적 계획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b=0.049, t=1.115) 인지적 창의양식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97, t=2.233). 따라서 가설2a는 기각, 가설2b는 채택되

었다.

지각된 장벽 및 지각된 지원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정은 다음과 같다. 조절효과 변수가 투입된 모형4의 F변화량은 유의하였다(⊿F=2.744**). 지각된 장벽에 대한 인지적 계획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b=0.048, t=1.213) 인지적 창의양식의 조절효과는 부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01, t=2.058). 따라서 가설3a와 가설3b는 기각되었다. 지각된 인식에 대한 인지적 계획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였으나(b=0.105, t=2.069) 인지적 창의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0.050, t=1.348). 따라서 가설4a는 채택, 가설4b는 기각되었다. 실증결과에 따른 토의는 결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선행 연구에서 기업가적 과정에 대한 연구인 계획된 행동모형이나 기업가적 사건모형 등은 이론적으로 기업가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증분석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는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가 초기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창업잉태과정을 기업가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양식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가적 과정에서 지각된 장벽과 지각된 지원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인지양식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효과에 있어서 창업의도, 인지적 계획양식, 인지적 창의양식, 지각된 지원은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각된 장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계수의 부호는 음(-)으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동일하였다. 지각된 장벽과 지원은 기업가적 과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 또는 한쪽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벗어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창업교육과정은 이수대상자의 창업가능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실증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창업의도와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인지적 계획양식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지적 창의양식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ckul et al.(2009)의 연구결과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적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할 때 처음 1, 2단계(창업기회의 개념화 및 확인)에서는 인지적 직관양식이 중요하며, 이후 3, 4, 5단계(계획, 자원준비, 실행)에서는 인지적 분석양식이 중요하다(Kickul et al., 2009).

인지적 직관양식과 분석양식은 특성 상 각각 인지적 창의양식, 계획양식과 대응된다.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은 모의창업활동을 통하여 평가를 받는 과목들을 이수를 하지만 모의창업활동 자체는 실제적인 창업활동, 즉 기업가적 과정의 전반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기 기업가적 과정을 이수하는 창업교육과정 중의 대학생들에게 있어 인지적 창의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며 후반기 기업가적 과정인 실제 창업단계에서 역할을 하는 인지적 계획양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지각된 장벽이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인지적 계획양식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으며 인지적 창의양식은 가설방향과 반대인 부정적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창의양식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이고 실험을 선호하며 문제를 기회로 인식하며 불확실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Cools & Van de Broeck, 2007) 지각된 장벽을 극복하는 사고방식으로 간주되지만 인지적 창의양식의 부정적 조절효과의 이유는 향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창업장벽에 대한 인식으로 파생되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파생될 수 있는 기업가적 행동의 회피, 의심, 불안 등은 초기 기업가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심은 창업의도와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Van Gelderen et al., 2015).

지각된 지원과 초기 기업가적 행동의 인과관계에서 인지적 계획양식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쳤으며 인지적 창의양식은 조절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창업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고방식이 초기 기업가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반면 창의적 사고는 지원에 대한 인식이 초기 기업가 행동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또한 Kickul et al.(2009)의 연구결과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기업가적 과정의 전 단계보다는 후단계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후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지적 계획양식의 효과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창업잉태과정에서 인지양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의 인지양식의 영향 또는 지각된 장벽 및 지원 등의 영향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차원의 의도가 아닌 행위차원인 초기 기업가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인지양식의 조절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업가적 과정인 창업잉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양식과 관련된 개념들인 지적능력, 성격특성, 학습 등과 같은 변수들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의도 이전의 단계 역시 포함하여 인지양식이 창업의도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벤처창업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단계별로 집단 간 인지양식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도출하는 시도 역시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교육과정의 이수 과정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 외의 잠재적 창업가 대상에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Cools & Van den Broeck(2007)이 개발한 인지양식을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지양식 척도를 활용하여 인지양식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의 지각된 장벽과 지각된 지원 개념을 활용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과정 단계별로 구성된 장벽 및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

김대업·성창수(2013). 잠재적 창업가의 예비 창업행동과 사회적 책임의식 간의 관계: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5(1), 25-46.

성창수·김진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3(3), 109-133.

심진섭·조경자(2008). 성격유형과 인지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234-235,

장수덕·이재훈(2014). 대학생 창업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학생 중심의 인지적 모델과 대학지원의 통합적 접근, *벤처창업연구*, 9(4), 65-76.

한정희·조건(2015).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111-118.

Adomako, S., Danso, A., Uddin, M., & Ofori-Damoah, J.(2016). Entrepreneurs' Optimism, Cognitive Style and Persis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22(1), 84-108.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llinson, C. W., Chell, E., & Hayes, J.(2000). Intu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9(1), 31-43.

Allinson, C. W., & Hayes, J.(1996). The Cognitive Style Index: A Measure of Intuition-Analysi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3(1), 119-153.

Armstrong, S. J., & Hird, A.(2009). Cognitive Style and Entrepreneurial Drive of New and Mature Business Owner-Managers, *Journal of Business Psychology*, 24(4), 419-430.

Carland, J. W., Carland, J. A., & Ensley, M. D.(2001). Hunting the Heffalump: The Theoretical Basis and Dimensionality of the Carland Entrepreneurial Index,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7(2), 51-83.

Carter, N. M., Gartner, W. B., & Reynolds, P. D.(1996). Exploring Start-Up Event Sequen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3), 151-166.

Chang, S. G, & Lee, J. H.(2014). An Empirical Study of Students' Start-Up Activities: Integrated Approach of Student-Focused Cognitive Model and Supportive Activities of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65-76.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ools, E., & Van den Broeck, H.(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gnitive Style Indicat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41(4), 359-387.

Cools, E., Van den Broek, H., & Bouckenooghe, D.(2009). Cognitive Styles and Person-Environment Fit: Investigating the Consequences of Cognitive (mis)fit,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8(2), 167-198.

Davidsson, P.(2003).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Some Suggestions, In Katz, J. and Shepherd, D. (Eds.),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Research* (Vol. 6, 315-372), Oxford, UK: Elsevier/JAI Press.

Davidsson, P.(2004).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NY: Springer.

Dess, G. G., & Lumpkin, G. T.(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Farmer, S. M., Yao, X., & Kung-Mcintyre, K.(2011). The Behavioral Impact of Entrepreneur Identity Aspiration and Prior Entrepreneurial Experi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2), 254-273.

Gartner, W. B.(1985). A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Gartner, W. B.(1988). "Who Is an Entrepreneur?" i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32.

Grigorenko, E. L., & Sternberg, R. J.(1995). Thinking Styles, In Saklofske, and Zeidner, M.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205-229, NY: Plenum Press.

Han, J. H., & Cho, G.(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11-118.

Hayes, J., & Allinson, C. W.(1994). Cognitive Style and Its Relevance for Management Practic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5(1), 53-71.

Hunt, R. G., Scandura, T. A., Schriesheim, C. A., Brannick, M. T., Seers, A., & Vandenberg, R. J.(1989). Cognitive Style and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4(3), 436-453.

Jabbour, C. J. C., Jugend, D., de Sousa Jabbour, A. B. L., Gunasekaran, A., & Latan, H.(2015). Green Product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Brazilian Firms: Measuring the Role of Human and Technical Aspect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87(15 January), 442-451.

Kickul, J., Gundry, L. K., Barbosa, S. D., & Whitcanack, L.(2009). Intuition Versus Analysis? Testing Differential Models of Cognitive Styl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the New Venture Creation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2), 439-453.

Kim, D. J., & Sung, C. S.(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Nascent Behavior and Inten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Focus on Meister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1), 25-46.

Kirton, M. J.(1976). Adaptors and Innovators: A Description and Mea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5), 622-669.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524-539.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Lüthje, C., & Franke, N.(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33(2), 135-147.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Messick, S.(1984). The Nature of Cognitive Style: Problems and Promises in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Psychologist*, 19(2), 59-74.

Mitchell, R. K., Smith, B., Seawright, K., & Morse, E.(2000). Cross-Cultural Cognitions and the Venture Creation Decis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974-993.

Mitchell, R. K., Busenitz, L., Lant, T., McDougall, P. P., Morse, E. A., & Smith, J. B.(2002).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gnition: Rethinking the People Side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93-104.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2003). *MBTI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lson, P. D.(1985). Entrepreneurship: Process and Abilit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0(1), 25-32.

Reynolds, P.(1994), Reducing Barriers to Understanding New Firm Gestation: Prevalence and Success of Nascent Entrepreneurs, Paper Presented at the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s, Dallas, TX, USA.

Riding, R. J.(1997). On the Nature of Cognitive Style, *Educational Psychology*, 17(1), 29-49.

Robertson, M., Collins, A., Medeira, N., & Slater, J.(2003). Barriers to Start-up and Their Effect on Aspirant Entrepreneurs, *Education + Training*, 45(6), 308-316.

Schwarz, E. J., Wdowiak, M. A., Almer-Jarz, D. A., & Breitenecker, R. J.(2009).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Perceived Environment Conditions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 *Education + Training*, 51(4), 272-291.

Sequeira, J., Mueller, S. L., & McGee, J. E.(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3), 275-293.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Kent, C., Sexton, D., and Vesper, K. H.(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im, J. S., & Cho, K, J.(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ypes and Cognitive Styles, *Proceeding of 2008 1st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ung, C. S., & Kim, J. S.(2011).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3(3), 109-133.

Tullett, A. D., & Davies, G. B.(1997). Cognitive Style and Affect: A Comparision of the Kirton Adaption-Innovation and Schutz's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ur Inventories (KAI and FIRO-B),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79-485.

Van Gelderen, M., Kautonen, T., & Fink, M.(2015).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s to Actions: Self-control and Action-related Doubt, Fear, and Avers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0(5), 655-673.

Wetzels, M., Odekerken-Schröder, G., & van Oppen, C.(2009). Using PLS Path Modeling for Assessing Hierarchical Construct Models: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MIS Quarterly*, 33(1), 177-195.

Witkin, H. A.(1962).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Studies of Development*, NY: Wiley.

Witkin, H. A., Moore, C. A., Goodenough, D. R., & Cox, P. W.(1977). Field-Dependent and Field-Independent Cognitive Style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1), 1-6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oderated Role of Cognitive Style in Entrepreneurial Process

Dae Eop Kim*
Chang Soo Sung**

Abstract

The most important points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re new venture creation and behaviors for start-up venture. Most of past researches are limited to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researches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specifically nascent entrepreneurial behavior, have not been studied well. In this study, we view entrepreneurial process as gestation process from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style, which is the way of thinking about the information in entrepreneurial process. In addition, we fi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styl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barriers and support in environmental factors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ies.

Subjects of this study are potential entrepreneurs. So we selected university students who are taking venture start-up course, conducted a survey, collected 367 questionnaires. In statistical test, we applied PLS-SEM for testing hypotheses because CB-SEM is too sensitive to test more than two moderating effects in th research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cognitive planning style, cognitive creative style, perceived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nascent entrepreneurial behavi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style which are the hypotheses in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planning style did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ie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arriers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cognitive planning style did not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and cognitive creating style had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 support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cognitive planning style had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effect, and cognitive creating style did not ha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Keywords: Entrepreneurial intention,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Cognitive style,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support

* First Author, Researcher, Gyeongsang University, krmarking@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redsun44@dongguk.edu